

“방호복 안은 항상 땀범벅...소변 걱정에도 물도 못마셔요”

“매일매일 땀으로 샤워를 하고 있어요. 방호복 벗기도 힘들어 소변 걱정에도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요.”

지난 6월 27일부터 광주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가운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보건소 행정직과 간호직 모두에게 비상이 걸린 총동원 상황이지만 이도 부족해 구청과 시청 직원까지 투입돼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검체 채취, 역학조사 등 쉴 새 없는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진료가 시작되는 구청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직원들이 진료를 시작하기 앞서 40~50분 일찍 출근해 진료 소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선별진료소 문을 연 뒤 방호복 착용과 검사 키트 정리 등 검체 채취와 문진표 작성 준비를 시작한다.

직원들은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방호복과 장갑, 마스크 등을 입을 순간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을 느낀다.

업무가 시작되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방호복을 입기 전 최대한 식사를 적게 하고 물과 음료도 목만 축이는 정도다.

동구 보건소 간호직에 근무하는 한 직원

코로나19 확진 급속 확산에 보건소 직원들 사투

“본격 무더위 시작 걱정...시민들 응원에 힘내”

은 7월 “식사도 최대한 간단하게 먹어요. 식사 뒤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목만 축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북구 보건소 직원도 “물을 조금 마시기도 하지만, 몸의 수분은 모두 땀으로 배출되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답답한 방호복을 입고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을 마치고 나면 항상 녹초가 돼 있다. 직원들은 ‘땀으로 샤워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방호복 안은 온통 땀범벅이다.

보건소 간호직뿐만 아니라 행정직 또한 바쁜 건 마찬가지다.

담당 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인적사항과 감염경로, 이동경로 등 1차 조사에 들어간다.

또 확진자의 밀접·간접 접촉자들도 인원수가 상당히 인원 파악 뒤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유도하는 등 할 일이 태산이다.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 이동경로를 시민에게 알리고, 검사진행을 위해 접촉자들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가 급하다.

혼을 다투며 일에 몰두하다 보면 수시로 자정을 넘겨 새벽 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집에 갈 힘도 없어 사무실에서 쪽잠을 잔 뒤 사무실에서 출근 준비하기 일췌다.

더욱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면 절기상 소서를 기점으로 낮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것으로 예보되면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구청 보건소 직원은 “그나마 요즘 며칠은 선선했는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면 하니 방호복을 입고 어떻게 일해야 하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확진자와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선별진료소를 찾아와 무리하게 검체검사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이어지면서 보건소 근무자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응원해주는 시민이 더 많다. ‘고생하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메시지 한마디에 의료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교회 앞에 설치된 이동선별진료소에서 해당 교회 신도와 가족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진은 큰 힘을 얻고 있다.

의료진 역시 몸이 피곤한 것보다 더 큰 걱정은 자신에게도 감염될 우려다. 방호복을 입어 온몸을 방어한다 해도 걱정이 안 될 수는 없다. 자신에게 감염되는 게 걱정인 이유는 바로 가족이다. 아무리 방호복을 입고 소독하고 깨끗이 샤워를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의료진은 퇴근 후 집에 가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구 보건소 직원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모든 국민들이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신봉우 기자



6일 오전 광주 동구청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에서 구청 보건소 직원들이 아이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오후 금양오피스텔 관련 광주 110번 확진자의 외손주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동구는 아동 확진자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생과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남매 확진’ 접촉자 222명 모두 ‘음성’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미추화아동 2명이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생, 교사 등이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광주시는 광주 113·114번째 확진자가 다니던 다솜어린이집(동구 산수동) 교직원 18명, 원생 53명을 포함해 접촉자 22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광주 113·114번째 확진자는 지난 5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들 남매는 현재 동거인이자 광주 110번째 확진자인 외조모와 함께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앞서 광주 107번째 확진자가 재학 중인 일동초등학교(북구 일곡동)에서도 급우, 교사 등 40명이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원아, 학생, 교사, 접촉자들은 모두 검사를 받았다”며 “뒤늦게 접촉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이 드문드문 검사를 받으러 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나’로 변진 광주 코로나 집단감염...母女 등 3명 확진

‘광주57번’ 등 확진자 2명도 방문

광주에서 대형 오피스텔, 종교시설, 요양시설에 이어 목욕탕에서도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남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 6명 중 3명이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위치한 SM사우나와 관련돼 있다.

모녀 관계인 120·121번째 확진자는 목욕탕이 폐쇄된 1일까지 내부 매점에서 일했고, 119번째 확진자는 6일까지 목욕탕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일 확진 판정 받은 광주

사랑교회 관련 ‘광주57번’이 6월23~25일이 사우나를 방문했고, 전남 26번째 확진자도 ‘광주57번’과 이곳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SM사우나를 이용한 시민들에게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광산구도 신창동 주민센터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해 방문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정례 기자회견에서 “6일 확진자 6명 중 3명이 특정 사우나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다”며 “이에 방역당국은 사우나를 또다른 감염경로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 확진자가 많지

않지만 사찰, 교회, 대형 오피스텔, 병원, 요양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10일동안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과 직장동료 간 일상접촉을 통한 감염은 물론 교회와 요양원 등 밀폐·밀집·밀접 등 ‘3밀 조건’이 갖춰진 실내 감염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다면 외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승호 기자

광주 집단감염 후 확진자 첫 퇴원... ‘56번 확진자’ 완치

집단감염 이후 9일 만

광주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9일 만에 처음으로 완치자가 나왔다.

7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금양오피스텔 관련 확진자인 ‘광주 56번 확진자’가 격리해제(퇴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광주에서 코로나19가 집단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퇴원하는 환자다.

병원 측은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자 24시간 간격으로 실시간 증폭(RT-PCR) 검사를 했고 2회 연속 음성 판정이 나오며 따라 퇴원 조치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인 56번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56번은 광주 금양오피스텔과 연계된 4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56번은 지난달 27일 금양오피스텔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121명이다.

김민정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